



손정수 기자

sonjs@steelsteel.co.kr

스틸데일리

특집 2 분기 전망-철 스크랩

4월 말 바닥 도달 가능성에 무게

수요 부진 속 국제가격에 영향받을 듯

예상과 달랐던 1분기

1분기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예상을 한참 빗나갔다. 지난해 말에만 하더라도 1분기 시장은 소폭 상승 후 하락을 예상했다. 예상된 상승폭은 톤당 2만 원 안팎 정도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5만 원가량 올랐고 실질 거래 가격은 6만 원 넘게 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철 스크랩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던 것은 제강사의 생산과 판매 정책의 유기적 협력이 약한 것이 첫번째 요인으로 보인다.

제강사들은 철근 등 봉형강 제품 가격과 세아베스틸의 전기로 보수, 현대제철의 구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을 크게 내렸다. 12월에는 재고 조정까지 들어가면서 가격 하락 속도를 키웠다.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에 6만 원 정도 하락했다. 남부지역 제강사의 중량A 구매가격은 톤당 48만 5,000원에서 42만 5,000원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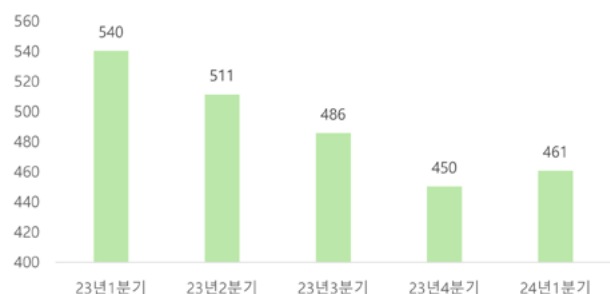
제강사들은 연말 재고 조정 효과 등으로 1월에 많아야 2~3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12월 하순부터 현대제철이 H형강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재고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최대 수요업체의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졌고 그 결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기간 일본 도코스틸 우츠노미야 공장의 H2 구매가격은 톤당 5만 1,000엔에서 한해를 시작해 5만 3,000엔까지 오른 후 최근에는 5만 1,500엔으로 하락했다. 2,000엔 오르고 1,500엔 하락했다. 원화로는 1만 8,000원쯤 등락을 한 것이다.

분기별 남부 제강사의 중량A 가격

단위:천 원/톤



일본에 비해 1분기 한국의 철 스크랩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튀르키예는 1월 중순에 428달러로 단기 고점을 찍고 410달러를 방어선으로 등락을 하더니 3월부터 급락해 378달러까지 하락한 후 3월 중순 380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고점대비 변동폭은 50달러로 약 6만 8,000원 하락했다. 튀르키예는 한국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그러나 서아시아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에 비해 작아 보인다.

따라서 1분기 한국의 철 스크랩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은 한국 제강사의 구매와 생산 판매가 엇박자를 낸 것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2분기: 하향 안정속 등락

한국의 스크랩 가격은 3월의 가격 급락으로 1월 초의 상승 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미국, 튀르키예, 대만의 수입 가격 등 주요국의 스크랩 가격은 1월초 가격보다 30달러 이상 낮다. 일본 도코스틸의 구매가격은 1월 초보다 5,000엔 높지만 시황 가격보다 1,500엔 가량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도 연초 수준까지 밀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은 1분기에 상당히 하락했다. 철근 가격이 빠지면서 스크랩 가격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3월 하순에 바닥에 도달한 조짐이 보인다. 특히 철강 제품 가격의 하락이 멈춘 것이 고무적이다. 4월에 미국의 철 스크랩 출고 가격도 회복가 점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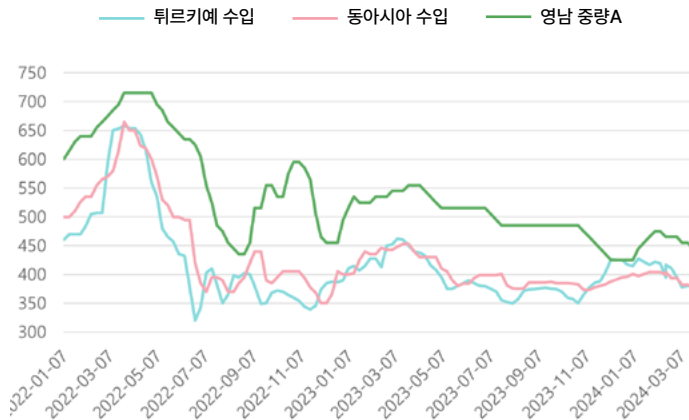
일본의 내수가격은 수출 가격 특히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수출 가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수입 가격이 연초보다 낮은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내수와 수출 가격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일본은 엔저로 그나마 하락폭을 상쇄했지만 엔저가 약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일본 스크랩 가격의 추가 하락은 한국의 내수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내수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이 버팀목이 될 것이지만 적은 수요와 제강사의 악화된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산 수출 가격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중에서는 3~5만 원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 스크랩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천원/톤



있다.

가격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요인은 수급이다. 2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철근과 형강 등 제품 생산량이 많다. 1분기보다 10~20% 가량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1분기에는 가격 하락 등으로 재고 조정까지 겹쳐 실질 수요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는 성수기 진입과 함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4월 10일 총선 이후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PF 부실 문제, 높은 분양가 및 건축비 등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공급과잉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남부지역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적이라면 수도권 가격의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남부지역 가격차가 3만 원 넘게 벌어지면 수도권 스크랩이 남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도권 제강사들도 수급 안정을 위해 남부에 비해 2회 이상 더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2분기 초까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락 폭은 남부지역을 기준으로 2~3만 원선이 유력해 보이며, 수도권은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

4월 말 이후에는 제강사별로 계약이나 특별구매가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강사의 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㉓